

독자의 발길 끄는 가을맞이 행사 풍성

서점·도서관마다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유관단체의 협력이 필요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벌이는 가을맞이 행사가 풍성하다. 각종 기획도서전과 알뜰도서관 교환전, 저자와의 대화, 기타 다양한 문화 이벤트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점 및 도서관의 가을맞이 행사들은 종래의 소극적인 독서캠페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마련, 독자들을 책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점이나 도서관이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교보·일신·영광 등 대형서점들 행사

행사의 규모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대표 신용호)가 마련한 '1천만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범국민 책사랑 운동'. "좋은 책과 독서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취지하에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고 있는 책사랑 운동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 1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독서생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의 대추제 사진 전시회' 'UFO 관련사진 전시회' '유아용 그림책 원화전시회'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는가 하면, '구간 우량도서 엮기 판매전' '잡지과월호 엮기 판매전' '알뜰도서관 교환전' 등 다양한 엮기 판매 행사도 치렀다. 또 유치원생 매장 견학(11월 30일)이나 표어 공모(10월23일~11월30일), 국민학생 독후감 경연대회(10월16일~12월15일)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자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도 있다. 이밖에도 출판사 영업부 직원과 서점 직원이 함께 벌이는 '책찾기 대회'는 서점과 출판사간의 유대감을 키우는 한편 신바람 나는 서점분위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기획,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개막행사로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렸던 '책사랑 도서전'은 양서보급에 앞장섰던 출판사 24개사를 선정, 1주일에 6개 출판사씩 자사의 출판물을 특색있게 전시, 홍보할 수 있는 특설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 출판사와 독자가 직접 만날 수 있

서점과 도서관들이 가을맞이 행사로

분주하다. 종래의 소극적인

독서캠페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독자들의 발길을 끈다.

그러나 이같은 풍성한 행사는

역설적으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님'을 말해준다. 가장

비수기인 가을에 사람들의 관심을

책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다.

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볼만한 도서전으로는 '해방이후 스테디셀러전'이 있다. 1945년부터 1993년까지 발행된 도서 중 현재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200종을 골라 연대별로 전시한다. (11월17일~30일)

이번 책사랑 운동기간 중 펼쳐지는 행사 중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모교 도서보내기 운동'. 5만원을 한 구좌로 신청자가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자의 이름을 명기하여 원하는 학교까지 전달하는 이 행사는 모교에 정성을 담은 책을 보냄으로써 잊혀졌던 고향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되살리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급 학교의 열악한 도서관 장서를 획기적으로 확충시킨다는 취지하에 진행, 훈훈한 화제를 낳고 있다.

서울에서만 실시하던 '저자와의 대화'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도 마련돼 있다. 각 구청과 연대하여 구민회관이나 강당 등을 이용, 저자와 지역주민과의 직접 만남을 주선한다. (11월 10일까지)

교보문고가 올 가을에 펼치는 행사들은 서점 행사가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종래의 서점 자체에 국한된 '행사를 위한 행사'를 뛰어넘어 서점과 출판사,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독서운동으로 그 의미를 확대한 점과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교보문고 책사랑 도서전. (위)
일신문고 이찬진씨 강연회. (아래)

영풍문고(대표 윤성노)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특설매장을 마련,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젊은 독자들을 겨냥한 이벤트가 많은 영풍문고의 올가을 행사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우수도서를 YMCA와 함께 공동선정한 것.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등 총 11개 분야 55종의 도서를 선정, 특설코너에 전시중이다. '작가와 대화'도 마련하고 있는데, 주로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대했던 지금까지의 형식과는 달리 박상우, 윤대녕, 구효서, 한강, 박일문, 김별아, 배수아 등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점이 특색 있다.

한국고서연구회에서 주최한 '한글날 기념 고서 전시회'(10월8일~15일)는 범우사의 윤행두 회장 등 고서연구회 회원들의 소

장자료 중, 조선시대부터 196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글 관계 도서와 자료들을 전시한 것으로 《박통사신석연해》 《월인석보》 등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밝혀줄 귀중한 전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 '올바른 독서를 위한 지침서 모음'이나,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 코너' 등 기획 전시도 볼 만하고 문구매장의 도서용품이나 음반매장의 도서 분위기를 돋우는 명상음악 전시도 이채롭다. 한편 인문, 사회, 문학, 아동 도서의 구정가 판매나 외국도서 할인판매도 12월말까지 계속한다.

취업정보에서 노래방 경연대회까지 다채
종로서적(대표 장하린)에서도 9월말부터



영풍문고 고서 전시회. (위)
중문서적 노벨문학상 특설매장. (아래)

12월말에 걸쳐 다양한 특설코너를 마련한다. 역대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빠짐없이 전시하고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수상작가 연표를 배포하고 있는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전' (11월11일)과 '책으로 보는 우리문화' 특설 코너에서는 우리 문화 관련서들을 한곳에 모아 진열한다. (10월23일~11월25일)

10월말까지 전시되는 '컴퓨터 도서 20선'은 컴맹에서 매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독자를 끌고루 만족시켜줄 만한 관련도서들을 전시했으며 '대기업 대졸 취업정보 코너'에서는 취업 정보서 200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12월10일)

지방 대형서점들은 지역의 주요한 문화공간으로서 서점 기능을 더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인

다. 지난 10월 2일 직장인을 위한 노래방 경연대회를 연 광주 일신문고(대표 임진환)는 그 대표적인 예. 10월 8일 개점 1주년을 맞은 일신문고는 노래방 경연대회 외에도 15일까지 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 포스터 전시회를 열었고 이밖에 '한글과 컴퓨터' 사장 이찬진씨의 특별강연회, 윤후명, 조정래 등 초청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했다.

부산 영광도서(대표 김운환)는 독서토론회, 서예학당, 한문학당, 시가 있는 저녁, 소설학당 등 정기적인 문화 모임을 만들어 독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24일 윤대녕, 박상우, 구효서 등 신예작가들을 초청, 독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대학가 서점들이 임대료 인상 등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즈음 신촌의 '오늘의 책'(대표 김봉환)에서 벌이는 의욕적인 기획도서전은 반가움을 더한다. 대학가 서점다운 신선한 주제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해당 도서들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6월 '시와 소설로 읽는 80년대'라는 주제로 첫 기획도서전을 연 이래, '대중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 '뜨거운 산문정신' '새내기 책읽기의 괴로움' 등에 이어 최근 '반대하기, 혹은 부정적 상상력'을 주제로 한 다섯번째 도서전을 열고 있다.

서점가의 이러한 행사와 맞물려 도서관의 책관련 행사도 적지 않다. 특히 10월 15일 개관 50돌을 맞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특별전시회,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21세기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학술 세미나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과거 현재 모습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미래 초고속정보화시대 중심도서관의 역할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같은 제목의 학술논문집도 발간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0월말까지 도서관 전시실에서 사진, 도표 등 역사자료와 서지·요람 등 발간자료, 국보·보물 등 소장자료들을 특별 전시한다.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도 해마다 가을맞이 독서캠페인을 위한 행사를 갖는다. 대표적인 것이 알뜰도서관환전. 15개 시도에서 치렀던 이 행사는 각 시도별 인구밀집지역에 우량도서 5천종 이상을 비치, 다 읽은 책은 다른 책과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각 지역별로 사진전 등 관련행사를 병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독서경진대회도 실시한다. 초, 중, 고, 대학, 일반 등 6개 분야에 걸쳐 독후감 경진대회와 함께 각 지역별 단위문고, 독서대학, 이동도서관 운영부문에 대한 시상도 아우른다. 각 지역별 예선과 중앙본선을 거쳐 시상은 11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가

서점이나 도서관의 행사가 가을을 맞아 더욱 활기를 띠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아니다'는 상황에 기인한

다. 책읽기에 계절이 따로 있을까 싶은데 종로서적 영업부의 김남식 과장은 "서점으로 보서는 가을이 가장 비수기"라고 그 속사정을 전한다. 따라서 서점가의 가을 행사는 영상매체나 넘쳐나는 향락문화에 쫓아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책으로 돌려 비수기를 극복하는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두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 서점이나 도서관의 책관련 행사들이 그 아이템이나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틀에 박혀 있거나 일회적인 캠페인 행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점의 경우는 상업성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사나 홍보효과만을 노린 알맹이 없는 행사가 많아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교보문고 조사부의 남성호씨는 "모교도서보내기" '책 찾기 대회' '지역사회 저자와의 대화' 등 상업성을 배제하고 서점 자체 내의 행사를 탈피, 출판사, 언론기관 등 관련단체와 연계한 행사,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독자들의 호응도 높고 효과도 큰 것 같다"고 밝힌다.

서점이나 도서관의 가을맞이 행사가 그야말로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돌려 놓기 위해서는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개발하고 실속 있는 행사를 마련하는 일과 그 취지를 범 사회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유관 단체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단일 서점 자체만의 행사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서점을 보다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열린 시각과 이벤트 개발이나 홍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며, 서점들간의 연대를 통한 행사 규모의 확대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출판사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가을날 벌어지는 서점이나 도서관의 행사들이 독자들의 발길을 책으로 이끄는 신바람 나는 한바탕 책잔치로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사회 문화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다.

—박남정 기자